

#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01.110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 02 시론

맹모삼천지어메니티(孟母三遷之Amenity)

## 03 종합

사랑에서 \_ 나 하나 꽃 피어  
건축사만평  
법령소식

##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2019년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 개최해  
광주건축사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가져  
광주건축사회, 올해 첫 건축사 실무교육 개설해

##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건축인의 밤' 성료  
전남 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로 등록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6호 준공식 열어

##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2019 신년하례식' 개최  
전북건축사회, '2018년 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전라북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재생 활성화 첫 삽

## 10 작품소개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주거 부문 은상 수상작

## 11 대학뉴스

광주예총, 올해 광주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서 건축인들에 시상  
전북대학교 한옥 교육,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우수사업 선정  
전통 건축 답사기

##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  
한 장의 사진 \_ 남덕유산 서봉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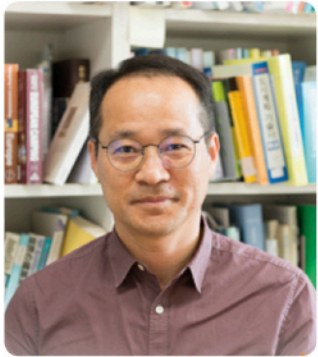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신간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맹모삼천지어메니티(孟母三遷之Amenity)



정금호 논설위원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kumho@chonnam.ac.kr

- 2007. 7. - 2008. 7.  
영국뉴캐슬대학 방문교수
- 2003. 3. - 현재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2016. 4.  
한국주거학회 우수발표 논문상
- 2005. 7. - 2008. 12.  
건설교통부 주거환경 자문위원
- 2018. 12.  
환경부장관상 표창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9년 다 돼지'라고 인사하며 모든 건축인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히스토리채널에서 2008년 방영한 '인류 멸망 그 후(Life After People)'는 인류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지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인류가 없는 지구와 도시는 충격적이고 공포스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끝내는 식물로 뒤덮임으로써 인류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져 버린 장면으로 마지막 컷을 보여주었다. 에펠탑과 같은 철골과 마천루의 콘크리트 건물은 무너져 내리고, 뉴욕 타임스퀘어가 사라지는 장면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가 만든 건조물이 자연과 시간의 힘 앞에는 그저 유한한 삶이 있는 한 유기체일 뿐임을 보여주었다.

유한한 건조물의 수명 또한 각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의 건조물 수명은 128년, 프랑스 80년, 독일 121년, 일본 57년이다. 한국은 고작 27년이다. 한때 국가 브랜드로 쓰인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를 실감 나게 하는 수치이다. 어린 시절 혹은 청장년기의 추억이 쌓인 공간이 실존하지 않으며 사진이나 추억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담벼락에 썼던 낙서와 골목길에 파 놓은 구슬치기 구멍은 어디에도 없다. 경제발전이 따른 토지이용의 가치 변화, 사회구조변화 등이 단명(短命)의 건조물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단명의 건조물이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을 통하여 경제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경제적 논리, 자본주의 논리로 단명의 건조를 양산하고, 끝없이 도시가 확장되길 원했다.

도시가 소멸(Disappear Cities)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 쓰던 쇠퇴(Shrinking)라는 부드러운 용어의 자리를 소멸이라는 용어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228개 시군구 중 89곳이 3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던 지명의 40%가 기억에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인류가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 89곳의 도시가 '인류멸망 이후'처럼 폐허가 되어 수풀로 뒤덮이게 된다. 일부에서는 경제 논리로 '지역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 인구 유출을 재촉하여 발생된 것'이라 분석하기도 한다. 과연 경제만의 이유일까?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한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 적응하

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환경을 만들어 다른 수많은 환경 요소를 제어한다. 우리는 이를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이라 한다. 말장난 같지만,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 또한 자신들이 만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기존의 환경이 붙잡을 만한 매력이 사라져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난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을 살기 적합하지 않다고 떠나면서 발생한 용어가 '도시 소멸, 쇠퇴'라는 용어이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

춘추전국시대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성장에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 다녔다.

2,400여 년 전 맹모의 행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바뀐 것은 마을 단위에서 도시로 공간적, 지리적 범위가 넓어진 것과 목적이 다를 뿐이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건축과 도시를 경제적 이윤 추구의 관점으로만 보아, 우리 도시를 맹모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렇다면, 단순히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맹모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세계적인 물류회사 아마존은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와 버지니아주 크리스털 시티를, 애플은 텍사스를 본사 도시로 선정하였다. 과거 기준인 물류 교통이 편리한 곳, 인구가 많아 인력 수급이 충분한 곳이 아닌,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하였다. 이제까지의 상식을 뒤엎는 결정이다. 미국의 기업이 맹모의 마음으로 본사가 설 도시를 선정하였다.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살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고령화, 저출산은 우리 건축인이 제어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이루는 건축은 우리가 잘하는 일이다. 문화, 예술, 공간을 아는 건축가가 그 지역의 건축물, 좀 더 크게는 마을, 보다 더 크게는 도시에 어메니티(Amenity)를 만든다면 최소한 맹모 관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한다. 때마침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축인이 이러한 일들에 적극 참여하였으면 한다.

맹모삼천지어메니티(孟母三遷之Amenity)의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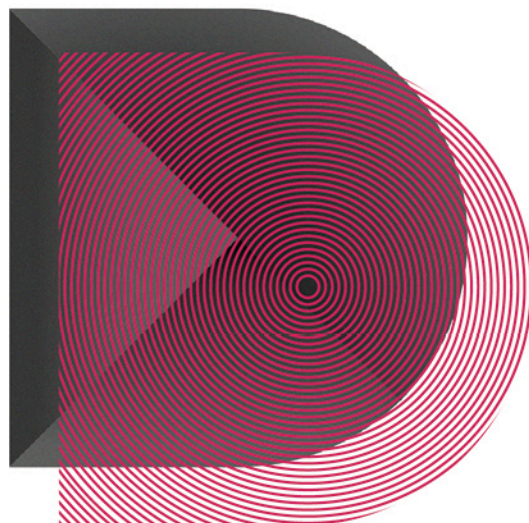
### 같지만 다른 캐드, 아키디자인 무료제품출시

일반캐드, 리습, 3rd Party  
그리고 건축전용기능까지

지금 바로 [www.midasCAD.com](http://www.midasCAD.com)에서  
무료로 제품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1899-9260



#### 작업효율 3배 향상

지겨운 라인편집 작업 → Direct Draw !

찾은 면적산정/도면수정 → Auto Revision !

단순반복 출력, PDF변환 → 1 Click !

#### 쓰던 방식 그대로

기본 2D캐드 가능 지원

리습, 3rd Party 기능 기본탑재

사랑에서 \_ 신 번째

나 하나 꽃 피어

숨 가쁘게 달려온 한해도 지나가고 새롭게 또 다른 한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를 보 내면서 되돌아 보건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란 생각밖엔 들지 않는다.

세월의 커들이 쌓일수록 아쉬움도 크지만, 세상을 알아갈수록 감사해야 할 것도 많 고, 부피도 커진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에서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인연이 되 어 행복한 삶이 되길, 나에게 다짐하고 바라본다.

모두의 삶과 쓰임이 각각 다르듯이, 어떤 경우든 나름 가치가 있다. 각각의 분야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들은 필요하고, 소중한다. 삶의 방향은 한곳만이 아 니다. 360도의 방향이다. 같을 수 없다. 비슷한 방향일 수는 있으나 다르다. 우리 각각 의 방향에서 각자의 멋진 인생 꽃을 피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네 세상살이가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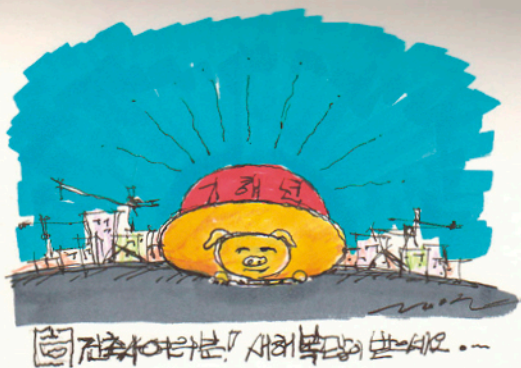
잠간은 몰라도 우리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가야 한다. 꽃밭은 하나하나의 꽃들이 각 각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꽃을 피울 때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란 시가 있다. /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 ... /

그렇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온전한 세상이 된다. 개 개인의 인생은 모두 꽃이다. 꽃이 되어야 한다. 그 꽃은 종류가 달라서 피는 계절이 다 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향기가 다르고, 컬러가 다를 뿐이다. 모두 소중한 것들이다. 이들이 모여 온통 꽃밭이 되어야 한다. 현재를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 자도생'의 시대라고 한다. 힘든 세상이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하 지만, 서로 의지하며 능력을 합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은 자들이 오래 생존할 수 있 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각자도생한다고 상대를 죽이고 혼자 살려고 한다면 결국 자신 도 죽게 된다.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 각자도생해야 함께 살아갈 환경이 만들어진다.

차이를 받아들이고, 다음을 인정하고, 각각을 이해하며 더불어 가야 한다. 쉽지는 않다. 그래도 그리해야 공존의 생태계가 온전해진다. 인간생태계는 혼자만 지킬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함께 각각의 역할을 다할 때 지켜지는 우리 삶의 터전이다. 지 금 우리 앞의 꽃밭을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인 주거 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 라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할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 상 아파트에서 세대 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연 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 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179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1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라돈 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 재료 기 준을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 공기 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 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 공기 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 공 기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제52조의4).

□ [20179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 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 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 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 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 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 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 제2항 신설 등).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묵,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정영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광주건축사신문협동조합 350,000원
- 강형선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100,000원
- 최경락 건축사 라일 건축사사무소 100,000원
- 한상문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휴 100,000원
- 한명석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100,000원
- 법무법인 법가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수완동 포레 연립주택

진수성 건축사 /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신창로 105, 5층 Tel. 062-672-2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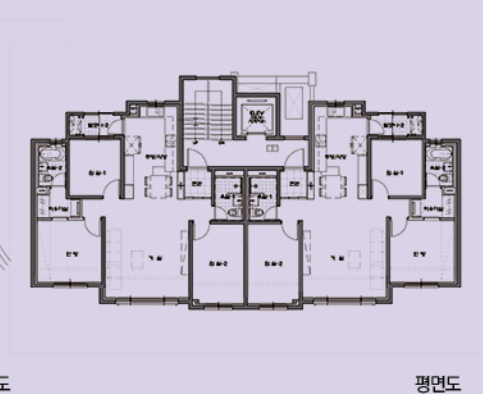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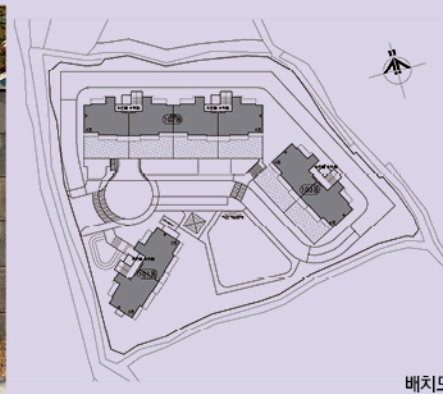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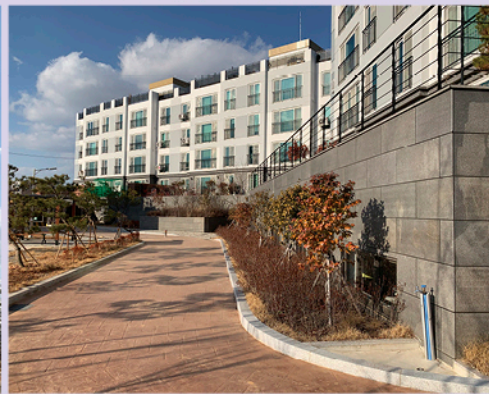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325번지 / 대지면적 : 4,367.00㎡ / 건축면적 : 871.42㎡ / 연면적 : 4,565.61㎡ / 건폐율 : 19.95%  
용적률 : 59.87% / 주용도 :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29세대)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도시·시간·자연이 함께 이웃하는共生주택

자연의 통경 및 바람길을 열어주는 배치계획으로 다양한 선택적 오픈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단지 내 산책로와 마당, 텃밭을 제공하여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고 '자연과 함께 이웃하여 삶'이 실현되는 단지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배치도

평면도

##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 광주건축사회, 2019년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2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150여 명 참석, 장학금 전달식도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1월 2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기해년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강현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에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냈으며 올해에도 우리 건축사들의 생존과 자존심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뭉쳐 건축사로서의 긍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말에 이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 등 광주 지역 4~5년제 대학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올 한해 추진할 사업들을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시무식 마무리로 회원 대표들과 떡 케이크를 절단하며 기해년 힘찬 출발을 함께 했다.

### 광주건축사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가져

지난 12월 20일 북구 중흥1동과 남구 방림2동 주민들에 쌀 포대 전달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2월 20일 북구 중흥1동과 남구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쌀 10kg짜리 160포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강현구 회장과 건축사회 임직원, 각 해당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관계자, 해당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소감을 밝히고 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이와 같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매년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 김장김치 및 연탄 전달, 육아원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배식 봉사, 장애인단체에 사회복지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 광주건축사회, 올해 첫 건축사 실무교육 개설

전문교육 2시간과 자기계발 1시간 개설... 오는 1월 18일 교육 진행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인정시간	교육비
1월 18일(금) 14:00~15:30	자기계발	건설인의 기술개발 노하우	노의철 대표 통진엔지니어링(주)	자기계발 1시간	무료
1월 18일(금) 15:30~17:30	전문교육	모바일 감리앱 시스템 및 감리실무 교육	박지훈 과장 (주)더섬	전문교육 2시간	30,000원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1월 18일 건축사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실무교육은 전문교육 2시간과 자기계발 1시간 인정교육으로 알려졌다.

교육대상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설기술자이며 건설기술자가 수강할 경우 건설기술자 교육 시간(설계, 시공 분야)으로도 인정되며, 수강 신청을 원하는 기술자는 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가입 후 교육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7일까지이며 교육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발표

올해 752명 최종 합격... 지난 1월 8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수여식 진행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지난 12월 26일 발표됐다. 올해 3과목 최종 합격자는 752명(7,122명 응시)으로 2017년도 시험 최종 합격률(607명 합격/6,049명 응시/합격률 10.0%) 보다 약간 늘어(2018년 : 10.6%)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호남지역에 소재지를 둔 합격자는 총 39명으로 광주지역은 15명, 전남지역 13명 전북지역은 11명으로 알려졌다.

이들 최종합격자는 지난 1월 8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건축사 자격증 수여식에서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 조달청, 공공건축 공사비 예측 시스템 오는 3월 오픈

공사비 저가 발주로 인한 설계비 저가 문제 해결하는 데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조달청은 원가 검토를 거친 공사비만을 근거로 지속적인 통계 축적을 통해 공사비 원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발주청이 공사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공공건축 공사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1월 19일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조달연구원을 통해 정보통신업체에 공공건축 공사비 예측 시스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1월 중에 '공공건축 공사비 예측시스템' 통계 사이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오는 3월에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발주청마다 공사비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등 공사비 저가 발주로 인한 설계비 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건축사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관련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202019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광주폴리 4차 프로젝트 매니저에 광주지역 강필서 건축사 선정

작품 기획 및 설계, 제작 설치 및 준공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폴리 4차 프로젝트 매니저에 강필서 건축사(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폴리 4차 추진을 위한 광주폴리시민협의회 3기를 지난 3월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갔으며 광주폴리 4차 마스터플랜을 지난해 10월 완료했다.

광주폴리시민협의회는 광주폴리 4차 마스터플랜을 구현할 수 있는 실무형 프로젝트 매니저 후보군을 압축했으며, 지난 12월 6일 개최한 광주폴리 시민협의회 7차 회의에서 강필서 건축사를 최종 선정했다.

강필서 건축사는 광주폴리 4차 기본 방향에 따른 작품 기획 및 설계, 제작 설치 및 준공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3개년 사업의 광주폴리 4차는 2017년도 평가 및 준비 단계, 2018년도 기획자 선임 및 기획 단계에 이어 올해 작품 설계, 제작 설치 및 준공 등이 실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광주폴리 사업으로 현재 광주 시내에 30개의 건축물 및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 광주 회원동정

#### • 전출

- 김용출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 전남

#### • 변경(소재지)

- 이종순 건축사 / (주)공감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화운로142번길 10, 13호

- 이광천 건축사 / 동신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매월2로 53, 8동 232호

#### • 부고

- 전 한 건축사 / 열린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2월 11일(화)

- 한명석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 빙모상 - 12월 18일(화)

- 윤양현 건축사 / 이조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1월 08일(화)

## 구교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정은미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79  
 Tel. 061-536-6446



대지면적 : 801㎡ / 건축면적 : 155.71㎡ / 연면적 : 262.38㎡ / 건폐율 : 19.44% / 용적률 : 32.76%

##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건축인의 밤' 성료

지난 12월 14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회원 및 초청 내빈 등 200여 명 참석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12월 14일 전남 여수 베네치아 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2018 전남건축인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원 및 초청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조연준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의식행사, 축하 공연, 화합 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식행사에서 공로패와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식순이 이어졌는데, 광양지역 건축사회 박병엽 회장과 나주지역건축사회 최세호 회장, 장흥지역건축사회 문성식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고, 순천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 동신대학교 학생 총 4인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조연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건축인의 밤 행사를 통해 전남지역 건축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전남건축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밝혔다.

## 전남 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로 등록

제739호로 등록, 지붕 목조트러스와 출입구 조형적 입면 구조 가치 인정받아



전남 광양시는 '구 진월면사무소'가 지난 12월 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739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는 1956년 7월 7일 건축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면적은 151.97㎡(중축 부분 제외)이다.

특히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주 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 건축 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됐다.

문화재청에서는 '구 진월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 지난 9월 문화재 관계 전문가 초청 현지 조사와 2018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문화재 등록 예고를 실시했었다.

한편 등록문화재란 건축·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해 등록된 문화재를 말한다.

##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6호 준공식 열어

지난 12월 17일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서... 조손 가정 대상 집수리 등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회장 문성식)는 지난 12월 17일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6호 준공식을 열었다.

장평면의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장흥지역건축사회와 나라건설(대표 김영상)이 함께 진행했다.

대상 가정은 장평면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군 주거급여팀이 사례관리 대상으로 발굴했다.

전남건축사회와 장흥지역건축사회, 나라건설은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열, 창호, 난방시설, 장판·벽지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또 낡은 싱크대는 새로 교체하고 토방에는 데크를 설치해 새집에 가깝게 집을 수리했다.

특히 장흥지역건축사회는 매년 저소득 가정 무료 건축설계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장흥군에 기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식 장흥지역건축사회장은 "많은 분이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선물할 수 있어 보람됐다"고 말했다.

## 전남 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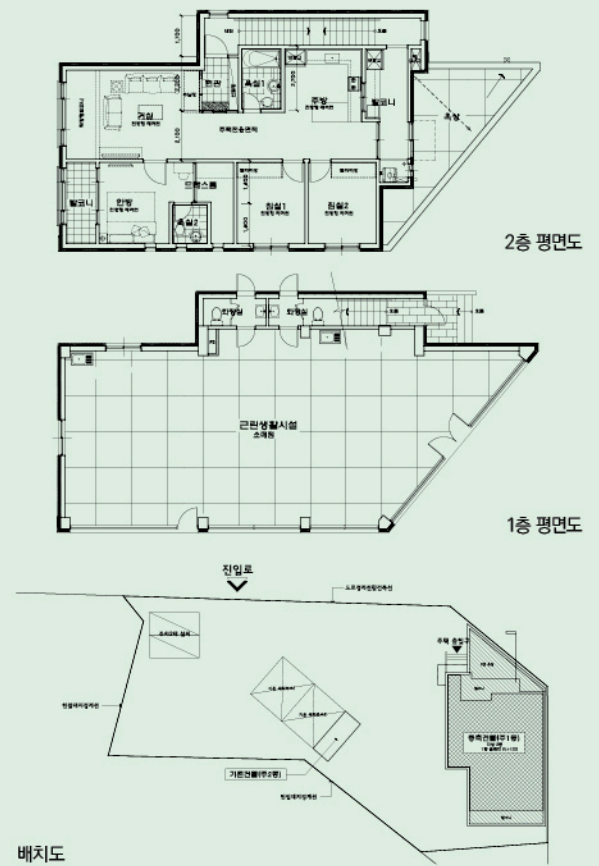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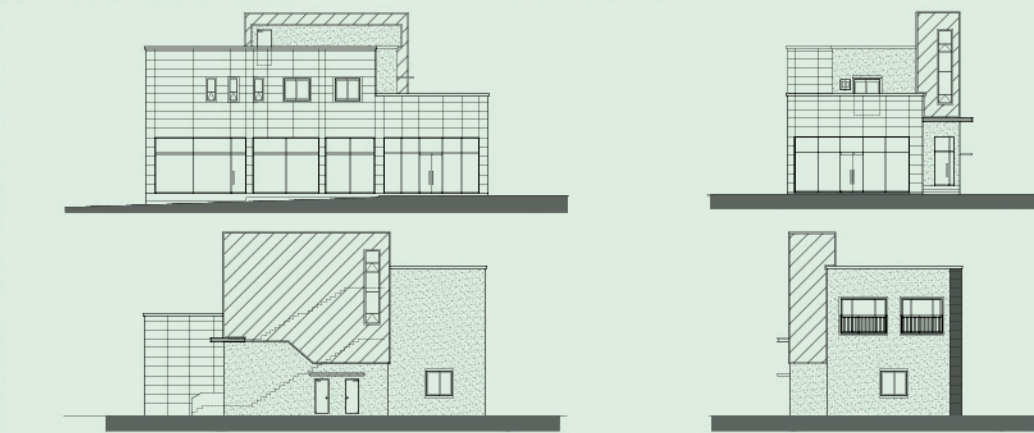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



전남 목포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산정근린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 산정근린공원은 지난 1976년 3월 27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40년 이상 미조성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오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 공



“ 기존 세차장 부지에서의 증축으로서...  
 매스는 대지 형상 대로 만들어 지고, 메인 도로에서 봤을 때 기존 경관에 순응하는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의 소매점과 남향 위주의 주택을 설계하고자 했다.”



원으로 해제된다.

일몰제한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민간공원조성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녹지, 주거, 상업 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해당되는 공원은 산정근린공원 외 6개(용라, 죽산, 양을, 안장산, 둔지머리, 안장)이다.

목포시는 올해 초 산정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사업 제안을 접수받아 세부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다수 사업자의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는 계량 평가(60점)와 비계량 평가(40점)로 진행되며 시는 전문가(공원, 도시계획, 회계, 환경, 경관, 건축 등)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추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검증 강화를 위해 전문가 타당성 검증 용역과 연계해 자체 검증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전남 장성군 건축행정...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장성군은 최근 전라남도가 관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월 3일 밝혔다.

장성군은 그동안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건축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아 왔다. 2016년 3월 전국 최초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을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토방(널빤지)을 깬 마루와 마당 사이에 마당보다 조금 높게 흙으로 만든 계단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토방에 계단이나 오르막을 설치하는 '토방 낮추기' 사업을 벌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고령의 주민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415세대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430세대에 추가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5년부터 매월 한 차례씩 군청 내에 건축사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건축물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오는 등 민원의 편의 또한 크게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장성군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도 주거 약자를 지원으로 군민 중심 건축행정을 구현한 데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전남도, '지진 안전성 표시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전남도 의회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결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 12월 18일 나광국 의원 등 10여 명이 발의한 전라남도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부터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대상이 전남도 내 모든 민간건축물로 확대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은 지난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제 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도입으로, 전남도 내 모든 민간건축물도 내진 설계와 지진 대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조례에서 정한 지진 안전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인증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건축물의 안전 및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민간의 건축주들 스스로가 건축물에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지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들이 자연스럽게 내진 성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남 회원동성

- 입회
  - 노영규 건축사 / 엔플러스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53-7, 1층
- 전입
  - 김용출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17, 503호
  - 오선화 건축사 / 아름다운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광남길 25
- 변경(소재지)
  - 흥기공 건축사 / 창 건축사사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1361
  - 최우길 건축사 / 디오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무등길 27-1
  - 이명동 건축사 / 세움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18, 2층
  - 김미영 건축사 / (주)금양이앤씨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대호길 59-36, 1층
- 결혼
  - 조연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조 / 자녀 결혼 - 12월 22일(토)
- 부고
  - 위소연 건축사 / 미강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2월 22일(금)
  - 김진선 건축사 / 구상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2월 13일(목)
  - 조봉기 건축사 / 조은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2월 29일(토)

**전북건축사회, '2019 신년하례식' 개최**

지난 1월 2일 전북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기해년 삼행시로 힘찬 출발 다짐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1월 2일 전북건축사회관에서 2019년도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길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은 지난해보다 건축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건축법령 등이 건축사님들에게 업무적으로 더 힘들게 개정되고 있으나, 우리가 힘을 모으고 열정적으로 노력한다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단결하고 화합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전북건축사회 신년하례식에는 역대 회장과 지역 회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길환 회장의 타봉식에 이어 협회 및 회원사무소의 건승을 기원하는 케이크 절단과 회원 상호 간의 신년 인사 및 덕담과 아울러

**기상하라 건축사여!  
해를 시작하는 열정이  
년말까지 쭉~~~욱**

이라는 기해년 삼행시로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자리를 마무리하고, 이어 점심으로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시종(始終) 화기애애(和氣霽霽)한 분위기 속에서 기해년 신년하례식을 마쳤다.

**전북건축사회, '2018년 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지난 12월 18일 전주 오펀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회원 및 내외빈 308명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12월 18일 전주 오펀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회원 및 내외빈 30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건축가협회 전라북도 건축사회 문창호 회장과 대한건축학회 전라북도지회 노준석 총무이사,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유용 과장,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 신희섭 과장 등 초청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길환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도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2019년 새해에도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이길환 회장과 각 지역건축사회의 협찬으로 경품행사가 열리기도 해 참석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라북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재생 활성화 첫 삽**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간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사업



전라북도는 지난해 9월에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이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간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 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올해는 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 학술조사연구와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등을 수행하여 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종합정비계획은 당해 문화재를 중심으로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국고 보조금 재원 확보의 기본이 된다.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세부 사업내용과 구체적 지원 규모가 확정되며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보존·활용기반 조성사업을 단계적·연차적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 전주시,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건축·건설·교통·보건·복지 등 5개 분야 44개 시책 정보 제공

전북 전주시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2019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4일 밝혔다.

이 책자는 건축·건설·교통·환경, 세제·부동산, 보건·복지, 재난안전·산업·경제, 문화·민원·일반 행정 총 5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건설·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 조사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이 변경돼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 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게 된다. 또, 전기화물차 보조금으로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유안당**

임애라 건축사 / 라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323, 202호  
Tel. 063-241-7731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05-3, 4 / 대지면적 : 1,093.00㎡ / 건축면적 : 283.06㎡ / 연면적 : 498.52㎡ / 주용도 : 단독주택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현무암, 벽돌, 방부목, 칼라강화유리



세제·부동산 분야의 경우 기존 체납 지방세 미납 시 매월 체납세에 가산되는 징수 증가산금이 기존 12/1000에서 체납된 지방세의 75/10000로 인하되고,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이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유상거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문화 분야는 기존 1인당 연간 7만 원 지원해온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는 8만 원으로 상향되고,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민원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처리 결과를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소득 하위 90% 이하에 선별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 등에 공공후견이 지원된다. 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20만8000원에서 22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재난안전·산업·경제 분야에서는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폭염 및 한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또는 연장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 비용 지원이 농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 농업인에게 주행식 예초기와 다용도 작업대 등의 편의 장비가 지원되고, 여성 기업에 업체당 300만 원 이내의 마케팅 비용도 지원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되며,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 군산시, '전북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서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2018년도 주택 및 건축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전북 군산시가 2018년도 주택 및 건축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지난 12월 18일 '전라북도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 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올해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갔다.

시에 따르면 총 8개 분야·22개 항목·38개 지표에 대한 주택·건축분야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공동주택건설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냈으며, 경관 정책 및 건축 행정 건실화, 노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저소득 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업무추진 수범사례 성과 및 우수시책 발굴에 적극 나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통합관리·안전점검·시설지원·공동체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거취약계층의 투명하고 쾌적·안전한 주

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관리사무소·공동주택품질 검수단·주거복지금융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서민주거안정 분야의 특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 완주군, 구 건축물카드대장 온라인 발급 개시**  
전라북도 내 최초 DB 구축 완료 세움터 시스템 탑재

전북 완주군이 전북 최초로 구 건축물카드대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세움터 시스템(e-AIS)에 탑재해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2월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업무 처리방식은 수기에서 2000년부터 전자정부구현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건축행정시스템(AIS)을 시작했다. 2008년 건축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세움터(e-AIS) 시스템으로 정착돼 모든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발급 민원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던 구 건축물카드대장은 영구문서로 보존돼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현황 및 소유자 등기 내용 대조 등과 관련해 구대장 발급 시 해당 자료를 찾아 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화재 등에 취약해 분실·파손의 위험과 문서의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세움터 시스템에 탑재하는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이 시급히 요구됐었다.

완주군은 지난해 7,000여만 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12만 5,000면의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보존 매체 수록을 통한 중요기록물 보존·이관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18일자로 건축물카드대장 조회·열람 및 발급·등록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와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대한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박성기 건축사 / 성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09-14
- **변경(상호)**  
- 국중훈 건축사 / 대광 건축사사무소 → (주)삼무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오치광 건축사 / 한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41길 14  
- 문명길 건축사 / 온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주현로 57  
- 최태훈 건축사 / 삼보 건축사사무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1
- **결혼**  
- 이준수 건축사 / 엔드림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1월 12일(토)
- **부고**  
- 오신철 건축사 / 가람설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1월 08일(화)



유안당의 배치개념은 대지와와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면, 측면의 2면 도로를 끼고 3m 이상의 레벨을 갖고 있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설계의 주안점이었다. 시작은 근거가 되는 벽을 세워 대지와와의 대화를 시도 하면서 건축주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공간과 주거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계하였다. 주거를 지나 작업 공간으로 갈 때 1층을 통해서는 시원한 공기와 만나고 2층을 통해서는 자연과 만나며 정화된 몸으로 새로운 나의 다른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수상작



어반브룩 (URBAN BR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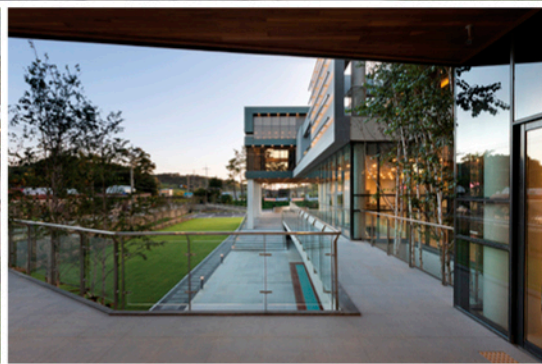
### 비주거 부문

설계자 : 정명환 건축사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양희근 대표 (연경산업(주))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길 181  
대지면적 : 2,930㎡  
건축면적 : 1,429.02㎡  
연면적 : 3,759.16㎡  
건폐율 : 48.77%  
용적률 : 128.30%  
규모 : 지상 4층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 징크판넬

### 도시의 개울

“다양하고 복합적인 아름다운 공간을 원합니다.”  
“도심속에 여백이 있고 비워진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건축이 도심속에 흐르는 작은 개울이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건축, 견고 싶은 건축



### 주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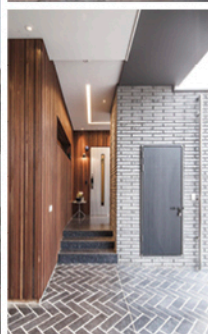
설계자 : 정관성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시공자 : 신경렬 대표 (좋은건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05번길 20-10  
건축면적 : 139.73㎡  
연면적 : 223.54㎡  
건폐율 : 48.85%  
용적률 : 78.13%  
규모 : 지상 2층  
주용도 : 단독주택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침표를 찍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주변 시선이 단절되어 쉴 수 있는  
네 식구만을 위한 특별한  
침표의 주거공간 Comma,

### Put in a Comma,



### 광주예총, 올해 광주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서 건축인들에 시상

예술대상에 정광민 건축사(서로 건축), 예술상에 유우상 교수(전남대 건축학부) 선정



정광민 건축사 유우상 교수

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이하 광주예총)가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헌한 사람을 선정해 지난 12월 21일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표창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 지역 건축인들에 대한 대상과 예술상의 시상이 있었는데 예술대상에는 정광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서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예

술상에는 유우상 교수(전남대학교 건축학부)가 표창을 받았다.

광주예총예술문화상은 광주예총 회원으로서 우수한 예술창작 활동으로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광주문화예술계 인사에게 매년 수여되어 왔다.

### 전북대학교 한옥 교육,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우수사업 선정

정읍시와 함께 진행하는 '정읍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프로그램이...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건축공학과 교수)가 정읍시와 함께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읍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프로그램이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2016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정읍 김명관 고택을 대상으로 건축 이야기, 한옥체험, 정읍의 명품건축 답사, 김명관 고택 토론을 통한 생각 나누기, 문화재 보호 활동 등을 1박 2일 동안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은 정읍 지역에서 구매한다. 숙박과 식사 운영도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남해경 센터장은 "우리 고장의 소중한 건축 문화재인 김명관 고택을 대상으로 학교와 관이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마이다스아이티, 건축설계 캐드 '아키디자인' 무료 제품 출시

아키디자인 홈페이지(www.midasCAD.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

글로벌 공학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마이다스아이티(대표 이형우)가 건축설계 전용 캐드 아키디자인 무료제품을 지난해 11월 8일 출시했다.

아키디자인 홈페이지(www.midasCAD.com)에서 기간 제한 없는 아키디자인 무료 제품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그동안 많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외산 캐드를 사용하면서 금액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국내 건축설계 업무방식에 맞게 도면작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리습이나 씨드파티를 추가로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품오류나 기능 업데이트 등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개발사의 즉각적인 대응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아키디자인 무료제품 출시로 금액 부담 없이 국산 캐드를 무료로 쓸 수 있게 됐다. 국산 캐드 개발사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점도 매우 큰 장점이다"라며, "출시 첫날에만 약 4,000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아키디자인은 공학용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검증받은 마이다스아이티가 건축설계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CAD 개발 전담조직을 구성해 2016년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이다.

마이다스아이티 건축설계SW사업 총괄 이정재 팀장은 "아키디자인 출시 3주년을 맞아 아키디자인 무료 제품의 보급을 통한 건축설계 캐드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고자 한다"면서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아키디자인 무료 제품을 통해 익숙한 캐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키디자인만의 차별화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건축설계업무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혁명에 발맞춘 도면업무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키디자인은 외산 캐드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DWG, 명령어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습 없이 쓰던 방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또한, 기존에는 추가로 구매해야 했던 씨드파티(third party)나 리습(LISP)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키디자인 하나로 원하는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아키디자인 홈페이지(www.midasCAD.com)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무료 제품을 다운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전남대 건축학과 학생들... 광주시 주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 수상

지난 12월 21일 시청에서 열린 '2018 청년·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에서



박진우(좌), 염하윤(우) 학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12월 21일 광주시청에서 전국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8 청년·대학생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가 청년과 대학생을 통해 '광주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이나 개선방안'과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 위해 필요한 혁신 정책' 등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로 평가받은 총 10개 팀이 컨퍼런스에서 PT 경연을 했다.

10개 팀 중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염하윤, 박진우 학생은 공·폐가를 청년 맞춤형 집으로 만들고 청년 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여 금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광주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함께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전남대학교 배성훈 학생기자

### 동신대 건축공학과 학생들... 산업체 현장 견학

지난 11월 초에 '공학혁신 페스티벌' 참가 및 건축물 답사 진행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 3학년 학생들과 손승광 교수는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 까지 경기 고양시와 서울 지역에 '공학혁신 페스티벌' 견학 및 건축물 답사를 다녀왔다.

첫째 날인 9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를 방문하여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이화여대에 방문하여 국내 최대의 지하 캠퍼스 건축물인 ECC를 관람 및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전쟁기념관과 아모레퍼시픽 본사 외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관람하여 패션 트렌드도 익히고 평소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시 및 다양한 디자인을 체험하는 등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된 좋은 시간이 되었다.

동신대학교 정태윤 학생기자

### 전통 건축 답사기 \_ 정다인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전남 문화재자료 180호 - 담양 대덕면 김선기 가옥

망인당(望仁堂), 세상의 '어짚을 바라보다'



작년 초겨울을 앞두고 갑작스레 내리는 비와 함께 우리는 담양 대덕면에 위치한 김선기 가옥에 다녀왔다. 뒤쪽으로 높은 산이 있고, 앞으로 작은 하천과 풍족한 들판을 통해 조선 시대 양반의 집터를 어떤 곳에 잡는지 잘 보여주었다.

경사진 골목길 끝에 있는 대문을 들어서면 높은 기단 위에 오른 망인당이라는 당호를 가진 사랑채를 볼 수 있다.

높은 기단 위에 사람 가슴높이 정도의 누각은 당호에 알맞게 세상의 어짚을 바라보는 듯하였다. 대문 밖의 골목길부터 사랑채의 시선을 받으며 중간대문의 계단까지 올라가며 안채에 들어섰다. 안채는 'c'자형을 하고 있는데 건물 구조 자체가 조선 후기 한옥에서는 잘 보기 힘든, 조선 중기 이전 한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비가 와서 내부를 보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며 가옥에 쌓인 먼지들을 청소하였다. 망인당을 지나, 사랑채, 사당을 차례대로 지나며 전체적으로 충고가 낮고 고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장산리 마을 맨 위쪽에 자리 잡은 옛집, 김선기 가옥은 현재 우리에게 역사와 전통을 생생히 전해주었으며 독특한 구조와 풍미를 자랑하고 있었다.

동백이 아름답게 핀 날, 다시 찾기를 약속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책 소개 \_ 이정민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

조지프 헐리너 지음 / 문학동네 / 2012. 03. 14.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인간은 로봇과 같이 기계적으로 사고할 수 없으며, 수십 세기의 진화를 거쳐 우리의 인식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사소한 실수가 나비효과가 되어 막대한 손실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실수로 인한 실패를 피드백과 통제를 통해 실수를 줄이고 성공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실수는 필연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존재하는 편향과 자신을 과신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자만, 보고도 보지 못하는 주의맹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실수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실수를 피하는 방법은 없

는 것일까? 자신의 실수를 이해하고 어떤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며, 어떻게 우리는 실수를 줄여야 할까?

이 책을 읽기 전 나는 실수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불안감이 나를 실수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지레 겁먹곤 했다. 하지만 이 책은 오히려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자만했을 때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답을 고치지 않는 것이 답을 고쳤을 때보다 정답에 가까울 것이라는 속설을 믿곤 한다. 하지만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답을 고쳤을 때 오히려 정답에 가까웠다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맹신하는 속설이 우리의 성공을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속설, 편향, 자만, 패러다임 등과 같은 요소들은 오히려 우리를 실수의 늪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성공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면, 겸손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 과정을 중시여기고 꼼꼼히 분석하여 실패를 줄이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또한, 실수했을 때, 이를 망각하려는 인간의 속성을 인지하고 실수를 외면하기보단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경험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만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황 혼

산 너머로  
지평선 너머로

검붉은 자색으로 휘감은  
깊고 깊은 불려홀 같은  
황혼이 일고 있다.

겨울을 나아가는  
밀랍속 사적이 어더할지

염려하기보다는  
내 숨고르기에 바빴던 불순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할 처지인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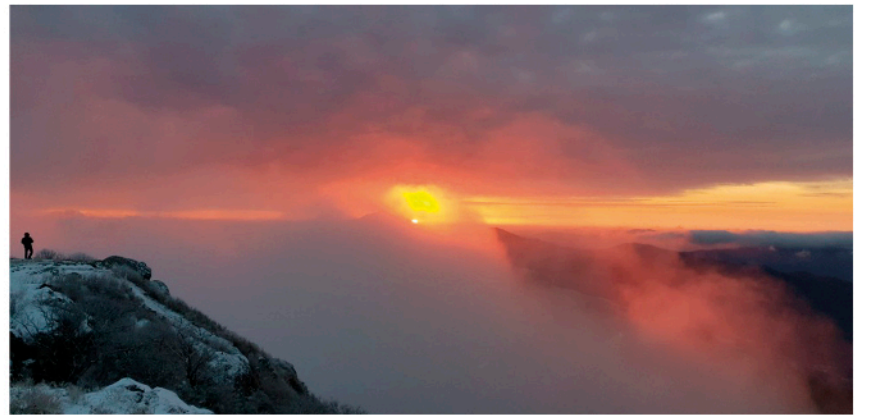
아무런  
장애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따뜻한 중심을 향하여  
나이트가 두터워지고

저무는 태양의 자태를 바라보며  
무지개 빛 선연한  
회한의 비눗방울을 하나씩 날려 보내며  
황혼을 맞고 있다.

마냥,  
꿀만 찾아다니다가  
불려홀 가장자리에서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

한 장의 사진 \_ 엄진영 작

남덕유산 서봉에서... 2019년 1월 1일 새해



法家 공증인가 법가

대표변호사  
박철 / 박철

▶ 공증업무, 송무업무, 등기업무, 신청업무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지산동)  
T . 062-233-8071  
F . 062-223-5376  
E . bubga8070@gmail.com  
www.법가.com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PC로그인 [www.archim.kr](http://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